

김경진·이용주 당선 뒤 與 입당...이해찬 “돌아올 일 없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를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무소속 당선 뒤 입당...일부 후보의 견해로 민주당과 관련 없어 선거 때만 되면 이당저당 옮겨다니는 관행 바로 잡고자 결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무소속 후보들의 민주당 입당을 불허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주재한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선거가 끝나고 우리 당을 탈당해서 다른 당에 간 사람들이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다.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또 "무소속 후보들이 복당하겠

다는 요청을 많이 했는데 한번도 안시켰다"며 "선거때만 되면 이당저당 옮겨다니는 잘못된 정치관행을 바로잡고자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무소속 후보가 당선 되면 입당하겠다고 보도문을 작성해서 배포한 것 같다"면서 이날 민주당 입당 의사를 밝힌 김경진 무소속 광주 북갑 후보를 직접 겨냥하는 발언도 했다.

김경진 후보는 이날 '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대위 회의 직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였다. 김 후보는 보도자료에서 "집권 여당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광주도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며 "지역주민과 지지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거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곧바로 '착오 보도자료'라고 정정했다. '민주당-더불어시민당' 선대위가 끝나자 다시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자료를 보내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이용주 무소속 전남 여수갑 후보도 당선 뒤 민주당 입당을 공언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사무실 등에도 '무조건 민주당에 입당하겠습니다'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는 "21대 국회에 입성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수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민주당 유일한 원팀...열린민주당 꿈수”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8일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와 호남이 들불처럼 일어나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민생당과 열린민주당 후보들이 총선 이후 합당을 운운하며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민심을 현혹해 집단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꿈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선택이 분열되면 야당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삶을 힘들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4년만에 다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말한다"며 민생당과 열린우리당 후보들에게 경고했다. 그는 "2016년 총선에서 지난날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셨던 분들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사심과 욕심으로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술수와 거짓으로 저희 어머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4년 전 국민의 당 세력은 민주당 지지세력 중 한 축인 호남 유권자들을 속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고, 이번에는 열린민주당이 다른 한 축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세력에게 손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개인적 친소관계만 따진다면 열린민주당에 있는 분들 중에는 제가 잘 아는 분도 있고 마음의 빛이 있는 분도 계신다"며 "그러나 정치도의상 공천결과 등 소속된 정당에 불만이 있다고 탈당하고 민주개혁세력을 분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4년 전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광주거리를 누릴 때나, 목포에서 가망없는 선거운동을 할 때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 한 것이 아니다"며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이 김대중정신, 노무현정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광주 북을 토론회...與 최고위원이 대기업 사외이사 ‘공방’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를 후보(왼쪽), 윤민호 민중당 광주 북구를 후보(오른쪽)

21대 총선 광주 북구를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기업 사외이사 근무경력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윤민호 민중당 후보는 8일 광주 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광주 북구를 선거구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형석 민주당 후보의 아시아항공 사외이사 근무에 대해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금호아시아나항공에서 갑질 사외이사 근무를 했다"며 "사외이사 경력과 민주당 최고위원 자격이 10개월 정도 겹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을 하신 분이 대기업의 사외이사란 것은 특권과 반칙의 냄새가 나는 일 아니냐"며 "앞서 이

후보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2018년 3월 금호아시아나가 가장 어려웠을 때"며 "2017년 금호타이어 매각 과정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사외이사 된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사외이사는 경영진을 감시하는 일이다"며 "2018년 아시아나항공에서 갑질 사건으로 떠들석했다. 남품업체 사장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때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며 "그 일은 사회사가 가기 전에"라는 답을 하던 중 윤 후보는 이 후보의 말을 끊으

면서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 이 후보가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사외이사를 했고, 사건은 2018년 8월에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기내식 대란 원인 자체"라고 답변을 하려고 했지만 윤 후보는 "유권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잘랐다. 이밖에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일곡동 쓰레기 매립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이 후보는 "주민대책 등을 만났다. 600억원에서 9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민립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속도보다는 방향성 문제가 된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들 찾아야 하는데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결국 이형석 후보는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답변도 들어보는 토론 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최경환 민생당 후보는 이형석 후보에게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이 후보는 "앞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에서 미래한국당 위성정당 허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미래한국당 창당 과정 잘 아시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최영범 기자

‘불사조’ 박주선, 막판 반전으로 ‘오뎅이’ 명성 되찾을까

광주 동남구의 '맹주'로 군림하던 박주선 민생당 의원(70)의 별명은 '오뎅이'다. 4선의 중진 의원인 그는 공천에서 탈락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다. 박 의원의 또 다른 별명은 '불사조'다. 그동안 5번 기소돼 4번 구속됐고, 구속된 4번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진기록을 세워 붙은 별칭이다. 1999년 오토비 사건 때 내사보고서 유출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2000년 나라중금 사건 때 두 번째,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 때

세 번째 구속됐으나 모두 최종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다. 2012년엔 불법 선거인단 모집 혐의로 네 번째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구치소 수감 기간만 4번에 걸쳐 409일이다. 4번 구속과 4번 무죄, 사법사상 초유의 이 기록은 한국 기록원의 한국공식기록으로 인증되었다. 그런 그가 4.15 총선에서는 고전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리는 것으로 나온다. 그래서다. '불사조' 박주선이 또 다시 막판 뒤집기 신공을 펼치며 '오뎅이'로 우뚝 설지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관세로 보면 민주당 후보가 앞서 나가고 김성한 전 동구청장과 박주선 의원이 추격하는 3파전 양상이다. 최대 관심사는 박 의원이 5선에 성공하며 '불사조' '오뎅이'의 신화를 다시 쓸 것이냐다.

최영범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